

# 신개념 인쇄회사 출범시킨 지엠피프린팅FOD

## 김양평 회장



세계 최고의 라미네이팅 기계와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 지엠피의 자회사인 지엠피트레이딩이 최근 상호를 지엠피프린팅FOD로 변경하고 '프린팅FOD'라는 신개념의 인쇄사업에 나섰다.

FOD란 Finish On Demand for documents and graphics solution의 약자로 인쇄, 출력, 라미네이팅, UV코팅 및 대형실사출력 등의 서비스를 고객이 요구하는 주문대로 신속히 제작, 완료하는 시스템 사업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프린팅FOD 1호점을 오픈한 김양평 회장을 만나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본다.



지엠피프린팅FOD는 (주)지엠피의 계열사로써 프린팅전문회사를 육성하여 새로운 인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설립된 디지털 인쇄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엠피트레이딩의 상호를 지엠피프린팅FOD로 변경한 배경은.**

지엠피트레이딩은 그동안 지엠피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비와 필름 판매, 인쇄물의 후가공 업무, 라벨인쇄와 전자인쇄 등 특수인쇄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인쇄기술 흐름은 '디지털'로 요약됩니다. 이에 지엠피트레이딩도 이같은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이를 리드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호도 거기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엠피프린팅FOD는 (주)지엠피의 계열사로서 프린팅전문회사를 육성하여 새로운 인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설립된 디지털 인쇄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1호점을 냈는데 주요 시설은.**

FOD란 Finish On Demand for documents and graphics solution의 약자로 인쇄, 출력, 라미네이팅, UV코팅 및 대형실사출력 등의 서비스를 고객이 요구하는 주문대로 신속히 제작, 완료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1호점에는 프린팅FOD 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디고 디지털인쇄기를 비롯, 각종 실사출력기와 라미네이팅기 및 UV코팅기, 제책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1호점을 강남 대로변(논현역과 신사역중간)에 개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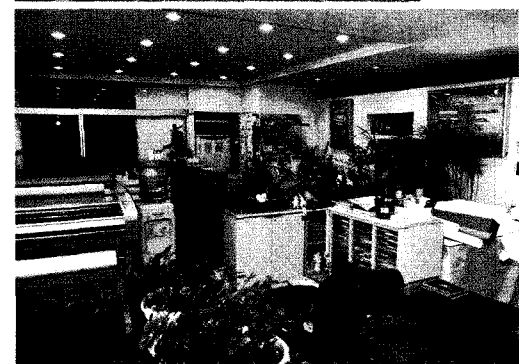
**'프린팅FOD' 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동안 POD(Print On Demand)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요. 주문형 인쇄, 주문형 출판 등을 의미하는데, 사실 POD는 Finish, 즉 마무리와 후가공 부분이 부족합니다. 후처리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이 간과되었던 것이지요. 장비나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엠피는 인쇄후가공 부분, 즉 라미네이팅기, 복합 UV 코팅기 제작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인쇄기와 지엠피의 후가공기기(라미네이팅기기와 UV 코팅기)를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프린팅FOD'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프린팅FOD' 라는 신개념의 인쇄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엠피의 생산제품은 모두 인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엠피의 제품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술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인쇄를 직접 해보고, 또한 새로운 인쇄시장을 창출하여 이를 모든 인쇄 관련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엠피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적합하고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벨 인쇄는 물론 차세대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인쇄도 지엠피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디지털인쇄와 Printed Electronics를 결합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이 사업에 동참하는 분들의 부가가치를 높여 줄 수 있다면 지엠피의 발전은 물론 인쇄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1호점 외부 전경과 내부모습





강남호점 내부에 설치된 다양한 기기들

**최근의 경기가 극심한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신개념의 인쇄업 전망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영의 합리화, 특히 부가가치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봐요. 인쇄업체, 특히 출력업체나 디지털인쇄업체에서는 어느 부분을 강화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인쇄기로 책을 만들 때 평범한 코팅으로 했을 경우와 신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코팅이 된 책은 보기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고객들도 대부분 좋아합니다. 비용이 크게 추가 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특수코팅만으로 책에 부가가치를 높여 뒀습니다. 비슷한 생산비용으로 제품을 고급화 시켜서 그 가치를 몇 배로 끌어 올려놓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엠피프린팅FOD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린팅FOD는 이러한 부분을 클로즈 업 시켰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자신합니다.

**‘프린팅FOD’는 모기업인 지엠피의 기술과 접목된 인쇄의 블루오션 발골인데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잘 아시다시피 지엠피는 라미네이팅기와 필름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도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프린팅FOD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지엠피 전체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인쇄와 후가공이 접목된 고급 인쇄물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인쇄물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1호점을 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지엠피 대리점을 확대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사업에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팅FOD에서는 일반인쇄는 물론 라벨, 전자인쇄, 실사출력 등의 다양한 인쇄물을 고급화시켜 단납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 편의점 형태의 인쇄마켓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또한 지엠피프린팅FOD 1호점 개설과 함께 고객들의 현장체험이 가능하도록 사업장을 개방할 것입니다. 누구나 디지털인쇄가 고급스러운 후가공과 만날 때 인쇄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인쇄업계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량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엠피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기술개발 방향은.**

라미네이팅 시스템 제조회사로서 제품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급진적으로 도입되는 Print On Demand(POD), 즉 주문형 즉석 인쇄물에 대응하는 라미네이팅 및 코팅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전자인쇄를 위한 Offset Gravure 인쇄기를 개발 완료하고 2009년부터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쇄기제조사 하이텔베르그의 협력으로 하이텔베르그 Speed Master 72 및 104에 지엠피의 급지기가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고, GMP Stream Feeder 10, 20, 30, 50 등 4종의 급지기를 소형 전자동 라미네이터(Pioneer Serise) 및 UV Coater(Eurocoter)에 장착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고속 UV Coating, 수성코팅 홀로그래밍 및 spot Varnishing 인쇄 복합기를 개발 했습니다.(지엠피는 350여 명의 직원 중 12%에 달하는 40여명을 기술연구소에 배치해 놓고 있다) 앞으로도 인쇄와 관련된, 특히 후가공 분야의 기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엠피가 정부로부터 RFID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발 현황은.**

우선은 RFID 안테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RFID 안테나의 가장 큰 단점은 대량생산이 힘든 다는 것과 칩 및 안테나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가공에 있어 여러 가지 다른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압에 의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시장에서는 실크스크린, 잉크젯 프린팅 등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엠피는 오프셋그라비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대량생산과 값이 저렴한 칩으로 인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우리의 목표이고 곧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인쇄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인쇄업계는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량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쇄물의 부가가치는 인쇄 전단계인 디자인과 후처리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강화해서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처리 부분에 비용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코팅과 엠보싱 등의 기술을 실현하므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인쇄비용은 마진폭이 적고 일정합니다. 경쟁도 심하고요. 그러나 디자인이 우수하고 후처리를 고급화하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의지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담\_유창준 국장 chang@print.or.kr 사진\_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